

★ 중앙교회 구역 모임(17-38) ★

※ **교제와 축복** / ‘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’

※ **모임을 위한 기도** / 대표 기도자

※ **경배와 찬양** /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
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

1. 삶 나누기

평생의 흔적

이성희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를 회고하면서 글을 썼습니다. <내가 본 아버지>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. 그 책의 내용입니다.

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였습니다. 발에 병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에서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병은 낫지를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. 3년 동안 출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.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공부도 포기하여야 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약을 붙인 것이 덧나버리고 말았습니다.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 하니까 대학 진학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. 집 안에만 틀어 박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. 그는 꿈쩍 못 하고 앉아서 성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. 성경박사가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드문 주석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. 성경 대학자가 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. 그 후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1993년 그가 은퇴하면서 존경하는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수술을 받으면서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발 뒤꿈치에서 1cm 가량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.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찢린 것이 속에 들어가서 그의 평생 가시가 된 것입니다. 그것을 거의 60년 만에 발견한 것입니다.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. 그 철사를 깊이 보관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자랑삼아 회고한 것입니다. "여러분! 이 가시를 보십시오.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 있던 가시입니다.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. 내가 대성서 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. 이 가시가 아니면 나는 주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. 성경을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. 일찍 발견하여 수술하였더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." 이 상근 목사님은 평생 좋은 흔적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.

1)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.

2. 말씀나누기

설교 : 예수님의 흔적 (본문/ 갈라디아서 6:11-18)

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였습니다.
십자가 흔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.
십자가를 사랑하며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.

나눔1.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은 육체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입니까?(6:12,13)

나눔2. 바울은 무엇 외에 사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?(6:14)

나눔3. 할례나 무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(6:15)

나눔4. 바울은 몸에 무엇을 지녔다고 했습니까?(6:17)

3. 은혜나누기

- 1)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까?
- 2)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.
- 3) 중보기도
 - (1)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,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.
 - (2) 110주년 기념음악회에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.
 - (3) 호롱불 십자가 종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시 등대가 되게 하소서.

☎중보기도 핫라인 010-2221-3346

4. 사역나누기

1) 교회사역안내

● 생명운동 캠페인36-9월 “은혜 충만한 예배-예배 에티켓 실천하기” 운동 /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

- 2) 찬송 /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
- 3) 헌금
- 4) 주기도